

표 문화전당, 시민의 힘으로

심 문화 인프라 확충 급하다

문화수도 문화발전소, 이젠 건립 서두르자

옛 도청 별관 논란으로 1년 여 동안 차질을 빚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22일 정부가 별관의 일부를 존치하기로 함에 따라 문화전당 건립은 새 전기를 맞게됐다.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문화전당 건립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민중 이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문화전당 건립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다. 시민들의 참여로 도시를 변모시킨 선진국들의 주요 사례를 2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세계 유명 문화·생태도시들 시민들이 성공 이끌어

광주 문화수도의 핵심거점이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수집하여 창조·개발하는 문화 콘텐츠 생산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발전소로서 광주는 물론 전국에 문화적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산업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화수도 성공의 관건으로 지역민의 이해와 참여를 꼽는다. 오는 2012년 개관할 문화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콘텐츠 마련 작업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없이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문화전당 운영체계·콘텐츠 구축 작업 영역은 문화전당의 핵심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 예술극장 ▲어린이 지식문화원 등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가 과제다.

문제는 전당을 운용할 문화산업 콘텐츠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경우 문화전당은 건립 취지와 달리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적인 문화·생태도시들의 성공에는 모두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브라질 꾸리찌바시는 1990년 유엔의 환경 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세계 주요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세계적인 환경 도시다.

꾸리찌바의 성공의 원동력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였다. 꾸리찌바시의 환경정책의 특징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된다는 것이다.

꾸리찌바시가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첫발을 디딘 시점은 1970년대 초. 도시의 틀을 바꾸려는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다. 1972년 당시 시장이 시내 상업지역의 혼잡한 자동차 도로 여섯 블록을 과감하게 인도로 변경하는 조치를 단행하자 주변 상인들은 완강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인도가 확충됨으로써 사람의 왕래가 늘어 장사가 잘되자 상인들은 오히려 차 없는 거리

를 확대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게 되었다. 차 없는 도로는 열다섯 블록까지 확대됐다.

결국 꾸리찌바는 지방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주민 참여가 결합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환경이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꾸리찌바 시의 환경정책의 골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처벌(stick)보다는 혜택(carrot)을 중시하는 것이다. 또 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모든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난 독일의 함(Hamm)의 성장 비결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다.

시는 경기침체로 황폐하게 방치된 탄광도시를 변모시키기 위해 '도시발전을 위한 생태 기준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산·화·관 100개 이상의 단체가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도시의 문제를 공유하고 각 계층, 전 시민이 참여하여 건축·교통·환경을 예외로 제외하고 이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도시로 토대를 닦았다.

미국 동남부 채터누가(Chattanooga)시는 시민들의 힘으로 도시를 변모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테네시강 주변의 중공업 공장지대로 성장한 이 도시는 그 오염도가 주간에 조명을 필요로 할 정도로 생활환경이 최악인 도시였고 산업폐기물 인한 공동화가 심화된 도시였다.

이 곳은 시 당국의 적극적인 환경 정화사업과 풀뿌리 시민모임의 자원봉사를 통해 리버파크, 수족관 등을 정비해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로 급성장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 도시인 가나자와시의 '시민예술촌'은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일상인 곳이다. 옛 방직공장건물 외부를 그대로 보존한 뒤 내부를 음악연습장, 공연장 등 기능별로 공간을 구성한 곳이 시민예술촌이다.

시민예술촌은 일본 내 공립문화시설로는 처음으로 '연중무휴·24시간 운영체제'를 도입했다. 시민들은 각 시설 이용자마다 대표적인 '시민 디렉터'를 도입해 자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도시를 변모시킨 선진국들의 주요 사례를 2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이런 도시를 변모시킨 선진국들의 주요 사례를 2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이런 도시를 변모시킨 선진국들의 주요 사례를 2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이런 도시를 변모시킨 선진국들의 주요 사례를 2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이런 도시를 변모시킨 선진국들의 주요 사례를 2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22일 별관 철거논란이 매듭지어짐으로써 건립공정 정상화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부지 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공사 현장. 위는 문화전당 조감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문화전당 어떻게 구성되나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은 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문화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문화창조원' '아시아 예술극장' '민주평화 교류원' 등 5개 전당시설과 13개 부속 공간으로 구성된 문화전당은 문화 콘텐츠 생산기지 역할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문화를 잇는 교두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평화교류원=5월 광주항쟁 유적지인 옛 전남도청과 도청민원실, 경찰청 등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아시아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아시아와 교류하는 공간이다. 부속시설은 '민주·평화·인권 기념관' '아시아 문화 교류지원센터' '경영전략지원센터'다.



'민주·평화·인권 기념관'은 인권, 평화 관련 자료를 모은 전시실과, 컨퍼런스실, 기념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광주항쟁을 비롯해 아시아의 민주인권 역사와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각종 포럼, 세미나, 기념 행사 등의 개최 장소로 이용될 전망이다.

◇아시아 문화정보원=아시아 문화자원을 수집, 분

민주평화교류원·문화창조원 등

5개 전당 시설 13개 부속 공간

문화 콘텐츠 생산·교두보 역할

류, 보존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창작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또 아시아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아시아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시아 문화연구소' '아시아 문화지원센터' '아시아 문화아카데미' 등 부속시설로 구성된다. '아시아 문화연구소'는 아시아의 지역·주제별 비교연구를 통해 아시아 문화자원의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기능을 맡는다.

◇문화창조원=다양한 아시아 문화의 소재를 첨단제작기술을 활용해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과 장비를 제공, 지원하는 창작공간으로 사용된다. 문화창조원 내 '문화콘텐츠 제작센터'는 작가들에게 첨단미디어, 정보통신 등



제작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물, 공연물 등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아시아 예술극장=문화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뤄지는 열린 공간이다. 대극장과 중극장으로 이뤄졌으며, 대극장은 아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연예술의 창작과정이 공개되고 시연·유통, 판매까지 이어지는 상설 시장 체제로 운영된다.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아시아 예술극장 자체 제작작품을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축한 뒤 성공적인 공연물을 상품화하는 등 수익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어린이 지식문화원='어린이 박물관'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예술과 인문학을 접목한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교육문화콘텐츠 개발센터'는 첨단 미디어를 이용해 이론과 체험학습을 결합할 수 있는 신개념의 교육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학습자, 교육자, 학부모 등이 공동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도 진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Domestic 100% Blueberry' (국내산 100% 블루베리) featuring product images, promotional text, and contact information (T. 062-222-7476, 010-3034-7476).